

광주시 에너지신산업 메카 조성 박차

연구기관·기업지원센터 설립 산업생태계 확보 신성장 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신기술 개발

광주시가 에너지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성장 전망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분야를 포착해 신성장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생태계 조성, 신기술 개발 및 지역기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에너지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기관과 기업지원 센터 등을 설립해 인프라를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지역

에는 에너지 저장·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과 에너지밸리기술원 등의 에너지 연구기관이 있다.

이어 전력에너지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올해 착공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된다.

올해는 에너지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플랫폼으로 레독스 흐름전지 인증센터, 인공지능(AI) 활용 이오닉스 기반 소재 개발 플랫폼 센터 구축 등을 통해 관련

산업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초석 마련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중 남구 도점산단을 산업부로부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받아 에너지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신산업 발굴과 지역기업 육성 정책도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세계 에너지산업의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산업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분산전원 연계한 발달용 전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BM 및 서비스 개발 검증사업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 시장 서비스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신기술을 개

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역기업에 신기술을 이전, 에너지신산업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실증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형 스마트에너지 자립산단 조성사업 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ESS(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력변환시스템 관련 분야인 도심특화 마이크로그리드 부품 및 시스템 개발에 본격 나서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지역기업의 매출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324명 접수...광주 음식 공모전 뜨겁다

광주대표음식 선정위 구성

광주시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광주 음식 공모전이 뜨겁다.

6일 광주시는 "광주 음식 공모전 지정 공모 부문에는 현재까지 광주시민과 타 지역에서 3324명이 참여해 한정식, 상추 튀김, 떡갈비, 육전, 오리탕 등을 광주 대표 음식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시작된 이번 공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정 공모와 스토리 공모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지정 공모'는 전문가 100인과 시민의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12개 음식 가운데 참여자가 광주 대표 음식 1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스토리 공모'는 지정 공모 음식을 포함해 참여자가 체험한 음식과 역사

성을 담으면 된다.

지정 공모 부문에는 현재까지 광주 시민과 타 지역에서 3324명이 참여해 한정식, 상추 튀김, 떡갈비, 육전, 오리탕 등을 광주 대표 음식으로 뽑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팔각국수, 닭육회, 닭볶음, 생고기비빔밥, 대인시장국밥 등이 접수됐다.

스토리 공모에도 100여 건의 음식 스토리가 접수되는 등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응모된 스토리에 대해 심사를 거쳐 6편을 선정하고 시상금도 지정 공모는 전문가 100인과 시민의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12개 음식 가운데 참여자가 광주 대표 음식 1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스토리 공모'는 지정 공모 음식을 포함해 참여자가 체험한 음식과 역사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농촌주택개량사업 1655동 확보 '전국 최다'

전남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 1655동을 확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국(8862동)의 18.7%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같은 성과는 시·군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철저한 추진 상황 관리, 전남도의 농촌주택환경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협에서 주택 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보다 저금리로 용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면적 150㎡ 이내 신축·개축·재축 등은 연리 2%, 1년 거주 19년(또는 3년 거주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 원, 중

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선금(중도금)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취득세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감면된다.

사업 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을 바라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금공한 사항은 시·군 농촌주택개량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촌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다수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전국 모범이 되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옥 기자 jwpark@kwangju.co.kr



새해 소망 담은 연 만들기 체험

실명절 연휴 기간인 6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관에서 어린이들이 연을 만들며 새해 소망을 적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복현, 대변인 김옥조

광주시 개방형 직위 4명 선임

광주시는 지난 1일 민주인권평화국장(3급) 윤복현, 대변인(4급) 김옥조, 노동협력관(4급) 하희섭, 문화예술회관장(4급) 성현출 등 개방형 직위 4명을 선임했다. 이번 선임은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이 민주인권평화국으로 승격되면서 3급 직위가 새로 생겼고, 직위 특성상 전문성, 경력 등이 요구되는 4급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기 위해 단행됐다.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선 7기 핵심 현안인 민주·인권·평화 도시 전략 수립, 5·18민주화운동 전국화·세계화 전략 및 선양사업 추진, 남북교류협력 등을 총괄한다. 윤복현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승격 이전 부서인 인권평화협력관을 지냈다.

대변인에 선임된 김옥조 호남대 교양

학부 초빙교수는 전남대 대학원 미술학 석사를 취득하고 조선대 미대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광남일보 편집국장, 제41대 한국기차협회 부회장 등 27년간 광주에서 언론인으로 지냈다.

노동협력관에 선임된 하희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실장은 광주경실련 노동위원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0년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노동계에 몸담으면서 비정규직과 노동자 권익 보호, 양극화 해소에 힘썼다.

문화예술회관장에 선임된 성현출 전 광주문화원연합회장은 남구문화원장, 남구의회 의원, 광주문화재단 이사, 조선대·송원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투자 유치 인도·일본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수출 다변화와 투자 유치를 위해 인도로 출국했다.

김 지사는 인도 웨스트벵갈주에서 세일즈 행보를 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호남 향우들을 만나 여수세계한상대회 참가를 독려한다.

김 지사는 인도 방문에서 대규모 경제·무역 박람회인 벵갈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Bengal Global Business Summit)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두 지역 간 경제협력의 제안을 계획했다.

또 마마타 바너지(Mamata Banerjee) 웨스트벵갈주 총리와 면담하고 우호협정도 맺을 예정이다.

인도상공회의소와 화학·비료·조선·농수산물 분야 경제협력 협약을, 인도 티타그 그룹과 조선산업 분야 수출입 협약을 체결한다.

김 지사는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 전남도민회 신년행사에도 참석한다.

도쿄호남향우회장·도쿄한국상공회의소장 등 향우 기업가를 만나 2019 여수 세계한상대회 참가 및 고향 방문, 전남지역 투자시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정옥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에 송상진 전 대변인

광주시는 송상진 전대변인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결정하고 2월 1일자로 교통건설국장으로 임용했다.

시는 현재 교통건설국이 민선 7기 핵심 현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혁신성,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리더십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광주송정역 광주다온 관문역사 조성사업,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조기 착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등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다. 광주일고와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한 송 국장은 1983년 광주 동구에서 첫 공직을 시작했으며, 광주시 대변인 홍보총괄 담당, 대중교통과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